

프로야구 LG, 26년 만의 대권 도전... “결코 꿈이 아니다”

8월 이후 두 번의 7연승으로 2위 차지...상승세 구가 중

선두 NC에 1경기차 접근...이번 주 키움 2연전 변수 전망

LG 트윈스가 가을야구를 넘어 정규시즌 패권까지 바라보고 있다. 중반 이후 고꾸라지는 흐름을 반복하면서 타팀 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시간을 거둬들이며 힘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LG는 지난 6일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7-1로 이겼다.

연승 행진을 7경기로 늘린 LG는 58승3무40패로 선두 NC 다이노스(57승3무37패)에 1경기 뒤진 2위에 자리했다.

한때 5위 싸움으로 밀렸던 LG는 8월 이후 두 번의 긴 연승으로 상승세를 구가 중이다.

8월12일부터 KIA 타이거즈(4경기)와 NC 다이노스(3경기)를 제물로 7연승을 달리면서 다시 흐름을 탔다.

최하위 한화 이글스전 연패(8월23일~24일)로 잠시 추축했던 분위기는 KT 위즈전 2연승(8월27일~28일)으로 불이 붙었다.

지난 3일 NC전에서의 짜릿한 역전승은 질주의 기록제가 됐다. 8회말 역전 3점 홈런의 주인공이 더그아웃의 리더인 박용택이라는 점은 팀을 더욱 하나로 뭉치게 했다.

LG가 가장 최근 정규시즌 패권을 거머쥔 것

이번주 프로야구 경기 일정	
◇9월8일~9일	▲KT-두산(잠실) 키움-SK(문학) 한화-삼성(대구) 롯데-NC(창원) LG-KIA(광주)
◇9월10일~11일	▲키움-LG(잠실) 삼성-롯데(사직) KT-NC(창원) 두산-KIA(광주) SK-한화(대전)
◇9월12일~13일	▲삼성-LG(잠실) 롯데-SK(문학) KIA-NC(창원) 한화-KT(수원) 두산-키움(고척)

은 1994년이다. 한국시리즈 우승 역시 이때가 마지막이다. 현재 LG의 기운은 그때 못지않다.

선발 투수 중에서는 두 자릿수 승리를 챙긴 이가 아무도 없지만 여러 명의 고른 성적으로 로테이션을 지키고 있다.

월슨(8승6패)-켈리(8승7패)의 외국인 듀오가 무난히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 토종 선발 임찬규의 도약이 고무적이다.



임찬규는 19경기에서 9승5패 평균자책점 3.81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 3승을 더 보태면 2018년 11승(11패)을 넘어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게 된다.

최고의 외국인 타자를 예약한 라모스와 김현수가 주를 이루는 중심 타선도 남부럽지 않

다. 이천우, 김민성이 부상으로부터 빠진 자리의 홍창기, 양석환 등이 훌륭한 메우면서 긍정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LG는 7일 롯데전을 시작으로 이번주 내내 경기를 갖는다. 특히 순위표에서 맞붙어 있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2연전(10일~11일)은 선두

권 경쟁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3연패로 기세가 좋지 않은 NC는 롯데, KT, KIA를 차례로 만난다. 5장 진입을 위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롯데, KIA와 9월 들어 가장 뜨거운 KT와 제법 부담스러운 한 주를 보낸다. **뉴시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전남GT에서 다시 시동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영암 KIC 상설트랙서 4라운드 레이스



계속되는 악재로 인해 대회 일정을 변경해가며 험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이 다시 시동을 건다.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낼 무대는 전남남도 영암군의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KIC)의 상설트랙이다.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2020 전남GT에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시즌 4라운드 레이스가 펼쳐진다.

2020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예정된 경기일정에 몇 차례 손을 댔다.

지난 7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의 3라운드 이후 때 아닌 휴식기를 가졌던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종합 모터스포츠 축제인 전남GT에서 다시금 레이스를 이어간다.

슈퍼 6000 클래스에서는 상위권 싸움이 눈길을 끈다. 김종겸(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이 51점을 모으며 드라이버 챔피언십 포인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뒤를 쫓고 있는 경쟁자들과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세 번의 레이스를 펼치면서 꾸준히 안정

적인 성적을 낸 정의철(엑스타 레이싱, 44점)이 7점차로 뒤를 추격하고 있다. 한 경기에서 최대 29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 7위(27점)인 조항우(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 이정우(엑스타 레이싱)까지도 충분히 선두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와 아마추어 드라이버로 구성해 펼치는 내구레이스인 전남내구, 묘기 주행으로 눈을 즐겁게 해줄 드리프트, 4륜 차량과 다른 매력을 지닌 2륜의 슈퍼바이크, 흔히 보기 어려운 오프로드 레이스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기가 마련됐다.

코로나19로 현장 관람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 팬들을 찾아간다. 채널A와 채널A플러스 등을 통한 생중계 외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채널에서도 경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TV와 카카오톡TV에서도 경기를 시청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재개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아쉬움 없이 즐길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60m질주 슈퍼세이브

손흥민 “1-3보단 1-2”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이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가진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서 약 60m를 질주하며 실점을 막은 장면이 현지에서 화제다.

손흥민은 6일(한국시간) 영국 왓포드에서 벌어진 왓포드(2부리그)와의 프리시즌 최종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해 0-1로 뒤진 후반 35분 페널티킥 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1-2로 패했다. 프리시즌 4경기에 출전해 4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런데 정작 이 경기에서 화제를 모은 건 경기 막판에 나온 손흥민의 '선방'이다.

손흥민은 1-2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상대가 빈 골문으로 때린 슈트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주세종의 패스를 받아 두 번째 골을 터뜨렸을 때처럼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컨디션 조절과 전술 완성도를 높이는 게 목적인 평가전임에도 매우 의욕적인 장면이었다.

경기 후,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은 “100m 달리기가듯 뛰어 골을 막은 손흥민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빈 골문을 보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아 제 때 도착해 막을 수 있었다”며 “(지더라도) 1-3보단 1-2가 낫다”고 했다.

손흥민은 이날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섰다. 주장인 골키퍼 위고 요리스(프랑스)와 해리 케인(잉글랜드)이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출전으로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같은 큰 클럽에서 주장 완장을 차 정말 영광스러웠다. 아쉽게 팬들이 없고, 중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랑스럽고, 다시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손흥민은 오는 14일 에버턴과의 2020~2021 시즌 리그 1라운드를 통해 새 시즌 일정에 돌입했다.

살인적인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에버턴과의 개막전을 마치고 불가리아 원정을 떠나 로코모티브 플로브디프(불가리아)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를 치르는 등 3주 동안 9경기를 치러야 한다.

손흥민은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다. 이제 좀 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텍사스 감독 “매일 출전하고 싶다면 추신수처럼”

메이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향해 베테랑 한국인 타자 추신수(38)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의 7일(한국시간) 보도에 따르면 우드워드 감독은 “나는 추신수를 최대한 자주 선발 라인업에 포함하고 싶다”며 “나는 추신수가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포스트시즌 진출이 힘들어진 텍사스는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외야수 엘리 화이트와 내야수 앤더슨 테하다가 빅리그에서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 보고 싶어한다.

하지만 우드워드 감독은 화이트보다 추신수가 라인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드워드 감독은 이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서 추신수를 선발 라인업에 포함했다. 반면 베테랑 유격수 엘비스 앤드루스는 벤치에 앉혀두고, 테하다를 선발 출전시켰다.

37세 이상의 나이에 한 시즌에 6개 이상의 도루를 성공한 텍사스 선수는 1963년 미니 미노스, 2004년 에릭 영 시너, 2007년 케니 로프턴에 이어 추신수가 역대 4번째다.

우드워드 감독은 “추신수는 스스로 출전 시간을 벌고 있다. 선수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 ‘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활약을 펼치면 출전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황당 실격패’ 조코비치, 공개 사과... “고의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

“슬프고 공허해...모두에게 사과”

US오픈 테니스대회 경기 도중 핫김에 공으로 선심의 목을 맞았다가 황당할 실격패를 당한 노박 조코비치(33·세르비아·1위)가 공개 사과에 나섰다.

조코비치는 7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9·스페인·27위)와의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1세트 도중 실격패했다.

1세트 게임 스코어 5-5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게임을 내줘 세트를 잃을 위기에 처한 조코비치는 핫김에 베이스라인 뒤로 공을 쳐 보냈다. 그런데 조코비치가 친 공은 선심의 목을 강타했다.

심판은 경기를 중단한 후 조코비치의 실격패를 선언했다. 조코비치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기 후 조코비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에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다. 조코비치는 “선심의 상태를 확인했다. 대회 주최 측에서 그녀가 괜찮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런 일을 당하게 해 그녀에게 매우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대회 주최 측, 나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한다”고 전했다.

충격의 실격패를 당한 조코비치는 29연승



노박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 단식 16강전 파블로 카레노 부스타(27위·스페인)와의 경기 중 핫김에 친 자신의 공에 목을 맞은 선심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조코비치는 이로 인해 실격패를 당하며 그랜드 슬램 대회 18번째 우승 도전과 올해 이어온 26연승 무패 행진을 마쳤다.

과 올해 26전 전승을 동시에 마감했다. 메이저대회 18번째 우승 꿈도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는 “모든 상황이 슬프고, 공허하다”면서 “실망감을 빨리 지워내고, 이번 실격패를 선수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데이비스컵에서 실수로 심판의 일

골을 공으로 맞춰 실격당한 경험이 있는 테니스 샤프발로프(21·캐나다·17위)는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솔직히 조코비치를 비롯해 모두가 안쓰럽다. 누구도 그런 상황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말했다.

뉴시스